세월호 참사 4주기 위기관리 학술대회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는 무엇을 했나?’

“우리사회에서 재난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과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반복되는 국가적 대형 참사 발생의
구조적 문제점과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한 위기관리 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18년 4월 13일(금) 12:30~18:0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공동주최 :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정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이재민사랑본부 재난관리연구소,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충북대학교

등록 및 접수
4월 13일(금) 12:30-13:00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프레스센터 방향
5호선 광화문역 5번출구 시청방향

초청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는 올해 5월이 되면, 선체를 바로 세우고, 미수습자에 대한 수색도 재개될 것이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많은 분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난 4년은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대형 재난의 발생과 해결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두드러진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세월호를 비롯하여 제천과 밀양의 화재와 같이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안전 불감증이나 재난대응체계와 같이 직접적인 원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참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래 위기관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와 뜻을 함께하는 기관들이 100일, 1주기, 2주기, 3주기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라는 단일 사건이 주는 아픔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에 잠재한 여러 문제들과 위기 이후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같은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소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각 분야에서 위기관리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봄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기관리 학자 및 실무 전문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학술대회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9일

세월호 참사 4주기 위기관리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이재은, 양기근, 이장희, 강현수, 김원용

공동준비위원장: 조　성, 조민상, 박연수

준비위원: 권건주, 권설아, 김겸훈, 김경남, 김도형, 김동욱, 김민우, 김병권, 김서용, 김유호, 김은기, 김은정, 김찬선, 김혜선, 김　훈, 노황우, 두오균, 라정일, 류상일, 박강우, 박근오, 박대우, 박동균, 박성일, 박순철, 박종선, 박주상, 박한호, 박형근, 반영운, 배동철, 배정이, 배천직, 변성수, 설경철, 성기환, 손인수, 송민선, 송윤석, 신승균, 신우리, 신원부, 원정훈, 유성은, 유　정, 윤성규, 이동규, 이병재, 이왕휘, 이주호, 이창길, 이해진, 이형복, 임동균, 정규진, 정덕영, 정상완, 정용진, 정원희, 정찬권, 정필운, 조성제, 조현빈, 조호대, 최미경, 최희천, 한용준, 허아랑

간　　사: 김아연, 김가희, 안룡천

PROGRAM

개회식 13:00-13:20

사회: 조 성
충남연구원

■ 개회사

이재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 국가위기관리학회 초대회장)
양기근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 환영사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이장희 (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김원용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축사

류희인 (행정안전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제1회의 13:20-14:00

기조발제 세월호 참사, 위기관리의 변화와 과제

사회: 조민상
백석대 교수

■ 기조발제 1

대형참사와 공동체의 탄력성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 기조발제 2

세월호 참사가 재난안전 분야에 주는 교훈
박종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안전소위원회위원장, 변호사)

휴식　　14:00-14:10

제2회의 14:10-15:50

대형참사 발생의 진단과 이슈

좌장: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국가위기관리학회 차기회장

■ 발제 1

국민과 소통하는 참사현장관리: 트라우마 예방을 통한 신뢰로운 정부
배정이 (인제대 교수)

■ 발제 2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며
박성일 (목포해양대 교수)

■ 발제 3

동일본대지진 복구·부흥의 문제점 및 과제
라정일 (돗토리대 교수)

■ 토론

조호대 (순천향대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도시방재·수자원연구센터장)
성기환 (서일대 교수)
송윤석 (서정대 교수)
최희천 (열린사이버대 교수)

휴식　　15:50-16:00

제3회의 16:00-18:00

종합토론 대형참사 위기관리, 시급한 대안은 무엇인가

좌장: 이명선
이화여대 교수,
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 토론

대형화재 - 변수남 (소방청 119 구조구급 국장)
지진 및 건물붕괴 - 신수봉 (한국지진공학회 회장)
해난사고 - 류찬열 (코리아샐비지 대표)
화학물질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질병 및 감염병 - 최보율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원전안전 -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

폐회식 18:00